

# 남원시, 추석 연휴 종합대책 가동

### 14~18일 보건의료·교통 대책·도로복구 등 7개반 구성 종합상황실 운영

남원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 교통 대책, 도로복구 등 7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재난 예방 및 사건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자들의 응급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응급 의료 기관(남원의료원),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당직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이 지정되어 운영된다.

경제분야에서는 최근 계속되고 고유가를 비롯한 고물가 현상과 이를 막기 위한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소비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 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남원사랑 상품권과 은누리 상품권 구매도

장려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수축산물 20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민관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반도 운영할 계획으로, 터미널 등 주요 정체 구간에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한다. 공영주차장을 개방·운영하여 귀성객 및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상습정체, 병목구간에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 현장단속반도 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손바닥이여 부끄러움이 없는 청결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추석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명절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청소민원 처리반과 특

별상황반도 운영한다.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도움의 손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공직자가 앞장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이웃돕기와 위문, 봉사활동을 펼쳐 따뜻한 명절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고 해도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기에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기회"라며, "특히 이번 추석을 보내고 나면 남원에서 '남원드론제전 with 로봇'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는 만큼 고향을 방문한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고향의 정을 느끼는 시간도 보내고 10월에 준비한 다양한 축제도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격려

임실군이 지난 11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관촌에 마련된 공동숙소를 방문하여 심 민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베트남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4월 베트남에서 입국한 근로자 30여 명 대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위로하고 군에서 준비한 고기와 과일, 베트남 명절 음식인 월병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군은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큰 시름을 덜고 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관내 88개 농가에 216명이 배치되어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다.

군은 2025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배치 인원을 더욱 확대 운영하여 농번기에 집중되는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 업무협약

### 순창군청·순창교육지원청·관내 고등학교·지역기업 참여

순창군이 지역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군은 12일 순창제일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교육기관과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순창군, 순창교육지원청, 순창제일고, 순창고, 동계고 관계자와 지역기업인 (주)대상 순창공장, 사조산업(주) 순창공장,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대표자들이 참여해 새로운 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은 지자체, 대학, 기업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순창제일고는 이를 통해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 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순창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발효바이오, 농생명스마트팜, 영상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특화 과목을 개설해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내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자율형 공립고 사업을 통해 순창제일고가 지역 교육의 혁신을 선도하는 모델 학교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교육지원청, 지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지난 11일 운봉읍 람천 일원에서 전국 최초 드론을 활용한 아주 특별한 '추석맞이 Clean 청소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 전국 최초 드론 활용 환경정화

### 남원시, '추석맞이 Clean 청소의 날 행사' 실시

남원시가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활용, 환경 보호에 앞장섰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운봉읍 람천 일원에서 전국 최초 드론을 활용한 아주 특별한 '추석맞이 Clean 청소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환경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남원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IX)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 둘레길 구간을 드론으로 촬영 후 AI 분석을 통해 쓰레기 식별, 정화활동을 펼쳤다.

특히 행사에서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첨단 센서 등이 장착된 드론의 비행 및 실시간 촬영영상을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 상황을 직접 확인 후 지리산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 환경정화를 실시해 이목을 끌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블리치 보급 및 확산사업 공

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드론 및 AI기술을 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 선도 실증 서비스에 대한 성과 보고 및 시연도 함께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앞서, 남원시는 스마트블리치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돼 선도 실증 서비스로 △방치쓰레기 탐지 △불법 소각 행위 감시 △방치 폐기 현황 분석 등 관련 학습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기술로 스마트한 자동분석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사회 현안 및 도시문제를 해결로 이바지 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개발했다.

남원시 홍보전산과 홍미선 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환경 보호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드론과 AI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효율화로 일하는 방식개선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2026~27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남원시는 12일 미래발전을 위한 2026~27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식 부시장 주재로 국소장과 전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발굴할 총 사업비 6,257억원 규모 48개 신규사업의 국도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보고된 분야별 사업 현황은 △지역개발(5건, 441억원) △미래농업(6건, 580억원) △정주여건(14건, 1,095억원) △지역경제(1건, 12억원) △문화관광(13건, 3,106억원) △교육복지(8건, 1,022억원) △기타(1건, 1억원)로 문화관광 분야가 전체 사업비 중 4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남원시는 이번 발굴 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추진하고, 기 추진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연



말까지 지속 발굴하고, 발굴 사업에 대해 전북자치도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설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활동 추진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최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부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사업들은 남원시 성장의 견인할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의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성기정식품사과고추장 대통령실 추석선물 선정

순창 성기정 식품(대표 김종덕)에서 생산한 사과고추장이 올해 추석 명절 대통령 선물세트 구성품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물세트에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와 지역 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됐으며, 그 중에서도 순창성기정식품의 사과고추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순창성기정식품의 사과고추장은 총복 보은의 사과와 순창의 전통 고추장 제조 기술이 만나 탄생한 제품으로, 맵하면서도 끝맛이 부드러운 이 독특한 고추장은 낙지볶음이나 떡볶이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종덕 대표는 "우리 제품이 대통령실 추석 선물로 선정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순창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 기술로 만든 고품질 고추장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임실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우수시장 및 임실시장에서 군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 150여 명이 함께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물가안정과 임실사랑상품권 및 은누리상품권 구매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임실시장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축산물(국내산) 구매 고객에게 구입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은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

한편, 군은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